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642

2008年 8月
教育學碩士(日語教育專攻)學位論文

日本語 敬語教育의 研究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 專攻

金 眞 熙

日本語 敬語教育의 研究

The Study of the Education of the Japanese Honorific Language

2008年　　8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 專攻

金 眞 熙

日本語 敬語教育의 研究

指導教授 金 仁 炫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日語教育專攻)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8年 8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 專攻

金 眞 熙

金眞熙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敎授　　朴 靑 國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金 仁 炫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丁 意 祥　印

2008年　8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目　　次

ABSTRACT iii
第1章. 序論 1
1. 硏究의目的 1
2. 硏究의 方法 및 範圍 2

第2章. 現代日本語 敬語의 定義 및 分類.....4
2-1 敬語와 待遇表現 4
2-2 敬語의 定議 및 分類 5

第3章. 言語的, 非言語的 表現要素로서의 敬語 9
3-1 言語的 表現要素로서의 敬語 9
3-1-1 尊敬語 9
3-1-2 謙讓語 16
3-1-3 丁寧語 23
3-2 非言語的인 表現要素로서의 敬語 27

第4章. 敬語 誤用表現과 敎師의 役割 35

第5章. 敬語敎育의 授業模型 41
5-1 敬語敎育의 授業 指導案 42

第6章. 結論 49

參考文獻 51

表 目 次

(表1) 分析에 使用된 12종 日本語 教科書 3

(表2) 尊敬語의 接頭語 分析 10

(表3) 尊敬語의 動詞 分析 12

(表4) 尊敬語의 形式動詞 分析 14

(表5) 尊敬語의 助動詞 分析.....16

(表6) 謙讓語의 形式動詞 分析 17

(表7) 謙讓語의 接頭辭 分析 19

(表8) 謙讓語의 動詞 分析 20

(表9) 丁寧語의 接頭辭 分析 24

(表10) 丁寧語의 動詞 分析 25

(表11) 非言語的인 敬語表現의 要素 27

(表12) 방문의 내용이 수록된 각 교과단원 41

The Study of the Education of the Japanese Honorific Language

by Kim-Jin Hee
Adviser : Pro. Kim-In Hyeon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One of the most difficult part of Japanese language learner is reading Chinese character and learning of honorific. So the text book for learning Chinese character is increasing in the street. However many people tend to make light of the honorific, rather the native speaker of Japanese take it with difficulty.

Because use of honorific is indispensible in living with language, most of the people tend to misjudge that they know a large part of it. But there have been increasing anxious for misapplication of the honorific because we often encounter a case of wrong application. This is what display the importance of the honorific education.

Japanese attach great importance to observing the proprieties and Japanese language includes a factor of nonverbal communication such as acting, a countenance, a tone, a dress, besides verbal factors. For that reason, the use of the honorific is a careful concern to others and is essential about learning Japanese. Therefore we need to develop a new efficient method of teaching for Japanese language teacher to make use of the right honorific.

At this point from 7'th education course to 8'th, I have tried to find the problems of the 7'th course of study and the complements in the 8'th. On the basis of that, I have tried to consider the frequent misapplication of the honorific and to describe the proper teaching method so that Japanese teachers understand learners in advance and give a lecture to them efficiently.

第1章 序 論

1. 硏究의 目的

일본어 학습자들의 일본어 습득 과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한자읽기와 경어의 습득을 꼽는다. 그래서 시중에는 효율적인 한자습득을 위한 교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의외로 경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어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어려움은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국민들이 오히려 어려워하는 실정이다.

경어는 韓·日 양국의 언어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언어적 요소이기 때문에 경어에 관하여 일정부분은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경어의 誤用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우려의 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경어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단면이기도 하다.

또한, 예의범절을 중요시 하는 일본에서 경어는 언어적 요소 이외에도, 동작, 표정, 어조, 표정, 복장 등 비언어적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경어표현 요소 또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임과 동시에 일본어다운 일본어를 구사 하고자 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일본어 경어 구사를 위해서는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어교육에 관한 효율적인 교수법 개발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일본어를 교육하는 교사가 숙지하여야 할 전반적인 경어의 내용에 관해 고찰을 하며, 더불어 7차 교육과정에서 8차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현재, 7차교과서의 경어부분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보고 8차 교과서에 첨가 되어야할 부분을 찾아보았다. 또한 다른 부분보다 빈도가 잦은 일본어 경어 오용에 관하여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경어교육 지도법개발을 목표로 한다.

2. 硏究의 方法 및 範圍

本稿는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분석의 한계에서 벗어나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찾고 개정될 8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첨가 되어야 할 부분을 고찰 해보는 시도를 하고 수업 후 학습자들이 빈번하게 겪는 오용표현을 분석 해 일본어 교사가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목표이므로 7차 교과서의 세세한 분석은 지양했다.

경어표현은 言語的 요소, 非言語的 요소, 수반적 요소의 3종류로 나누어진다.[1)]언어적 요소는 언어 표현세계의 요소로 생각하는 것 이다. 우선, 경어의 개념을 정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경어를 언어적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로 분류 했다. 비언어적 요소는 제스처등 언어표현의 세계와 무관하다. 마지막으로 수반적 요소는 언어적 표현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주변적 행동 요소로 문장어의 경우 용지 그 이외에 재료의 선택, 화자와 청자 간의 거리 유지 방법, 회화에 수반 되는 笑い등이다.

이처럼 경어표현의 요소는 세분화 하여 나누어지지만 本稿에서는 학생 및 일반 학습자들에게 크게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로 나누어 가르치는 것이 경어의 부담감을 줄여 준다는 판단 하에 크게 언어적인 면과 비언어적인 면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에 포함되는 범위는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12종 Ⅰ(12권)과 Ⅱ(6권) 총 18권에 나타난 경어를 접두사, 동사, 형식동사. 조동사를 중심으로 분석 하였으며, 비언어적 요소로 경어교육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인사, 복장, 예절, 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현 7차 교육과정에서의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로서의 경어 교육의 문제점을 찾고 8차 교육 과정에서 정정, 시행되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수업 후 학습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본어 오용의 원인을 고찰하고 상황별, 언어적 요소별로 분석했다.

연구를 바탕으로 경어교육에 따른 교사의 올바른 역할을 제시하고, 경어교육을 위한 授業模型을 개발하고자 했다.

조사 분석에 사용된 12종 일본어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교과서는 출판사의 자음의 빠름 순으로 順序를 정했으며, 교과서는 표에 표기된 略記名으로 표기했다.

---

1) 林 四郎 外, 『敬語の体系』明治書院, 1975,pp.60~73

(表1) 分析에 使用된 12종 日本語 教科書

出版社	著者名	略記名	區分	總課數
교학사	유용규·김우연 후쓰카이치 소	교학A	Ⅰ	10
교학사	이봉희·김남익	교학B	Ⅰ	12
			Ⅱ	10
대한교과서	김숙자·어기륭·이경수 사이토 아사코	대한	Ⅰ	12
			Ⅱ	12
민중서림	이숙자·김선영·안병준·이태영 최인홍·미노와 요시쓰구	민중	Ⅰ	10
블랙박스	한미경·조성범·이영환 쓰자키 코이치	블랙	Ⅰ	10
			Ⅱ	10
와이비엠시사	장남호·김우열·최영숙	시사	Ⅰ	12
성안당	안병곤·윤강구·최용혁·정영민	성안	Ⅰ	12
지학사	김효자·박재환·정용기	지학	Ⅰ	12
			Ⅱ	10
진명출판사	이현기·이한섭·한중선	진명A	Ⅰ	10
진명출판사	유길동·여선구·조문희 가이자와 도시코	진명B	Ⅰ	12
			Ⅱ	10
천재교육	양순혜·이원복·위혜숙·이향진	천재	Ⅰ	12
			Ⅱ	11
학문출판	조남성·기타 나오미	학문	Ⅰ	13

第2章. 現代日本語 敬語의 定義 및 分類

2-1 敬語와 待遇表現

敬語라는 표현을 논하기 전에 주목 하여야 할 것이 대우표현이다. 待遇表現은 경어보다 쓰이는 폭이 넓으므로 敬語와 待遇表現을 분류 해 보려는 시도는 꾸준하다. 대우표현의 골격이 경어이므로 일반인 학습자들 에게는 경어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우나 일본어를 지도하는 교사는 대우표현과 경어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쓰지무라(辻村, 1984:2)는 대우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대우표현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待遇表現」이란, 표현주체(화자 또는 글쓴이)가 표현수용자(청자 또는 독자) 혹은 표현소재(화제의 인물)와 자신과의 사이에 존비(尊卑), 優劣(우열), 친소(親疎) 등,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인식하고, 그 인식을 언어 형식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대우표현에 관한 설명을 인용 해 보면, 가바야(蒲谷, 1993:27)는 상세하기는 하지만, 설명이 복잡하게 느껴진다.

「待遇表現」이란 어떤 표현 주체가, 어떤 표현 의도를 가지고, 자신· 상대· 화제의 인물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인식하고, 장면의 상황 · 분위기, 문맥 등을 의식하여, 표현형태(음성표현 · 문자표현)를 고려하고, 이상의 제약에 상응한 제재(題材) · 내용, 적당한 언재(言材)를 선택하여 문장·담화를 구성하고 매재화(媒材化 : 음성화 혹은 문자화)하는 일련의 표현행위라고 규정활 수가 있다.[2)]

이를 종합해 보면 待遇表現이란, 경어를 포함하는 광의적인 표현양식으로 화자와 청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우표현에는 언어행동뿐 아니라 비언어 행동까지 포함한다라고 정의 해 볼 수 있다. 이처럼 待遇表現은 여러 학자가 정의하고 사전의 표제어로 실릴 정도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므로 待遇表現

2) 백동선 『일본어의 대우표현 연구』보고사, 200 p.21

과 敬語는 구분되어 사용 되어야한다. 本稿에서는 敬語를 待遇表現의 한 부류로 인정 하고 분류 하였다.

2-2 敬語의 定義 및 分類

현대 일본어에서 경어의 정의는 경의를 표하는 말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나 세부적인 사항에는 저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학자의 경어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敬語」とは同一の対象または同類の対象の言語表現が話者·聽者及び第三者間の優劣親疎によってその形態を別にする言語習慣である。敬意を念める言語表現なのである。[3)]

현대 일본어의 경어는 정중함(politeness)을 표현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즉, 경어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화제내용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말하는, 화자의 언어행동과 언어형식이라 할 수 있다.[4)]

우리가 경어라고 부르는 형식경어(lexical politeness)는 존경어와 겸양어를 포함하고 있고 음성의 운율적 특성이 나타나는 음성경어(phonetic politeness) 비언어적 행동특성을 수반하는 행동경어(nonverbal politeness)를 좁은 의미의 경어라고 부른다. 이를 종합 해 보면 敬語는 대우표현의 일종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거나 상대방을 정중하게 표현하는데 쓰이는 표현으로서 좁은 의미의 경어가 적절히 작용된 표현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경어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인 별로 의견이 분분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형식경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어가 갖는 의미는 다른 표현으로 경어가 가지는 기능이라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경어의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本稿에서 정리를 하였다.

쓰지무라(辻村, 1967)는 경어의 역할을 「상하의 식별에 의한 습관적 경어, 은혜자· 우위자에 대한 경어, 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어, 품격유지를 위한 경어, 자

---

3) 国語学会 編, 『国語学辞典』, 東京堂出版, 1980, p.286
4) 国立国語研究所『敬語教育の基本問題 上下』1992

기에게 사용하는 경어」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오이시(大石, 1975)는 경어의 효과로써, 「높임을 위한 표현, 거리를 두기 위한 표현, 친애를 위한표현」을 들고 있다. 이 오이시(大石)의 견해는, 기타하라(北原, 1988)가 경어의 기능으로 들고 있는 「존경, 격식, 소원(疎遠),품격유지, 자상함」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5)]

선행연구를 토대로 本稿만의 경어의 기능을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어의 기능은 경의표현의 기능, 격식을 나타내는 기능, 품격을 유지하는 기능, 상대와의 거리 유지 기능, 금지 표현의 완곡한 표현 기능 등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경의 표현의 기능은 상대를 연령의 연장자와 사회기준의로서의 상위자의 두 부류로 나누어 전자는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경의표현으로서의 경어를, 후자의 경우 상하관계의 상위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인 경어표현을 쓰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으로, 격식을 나타내는 기능을 살펴보자. 현대 사회에서 경어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와 상관관계가 있는 항목으로 공식석상이나 대중매체 등 다수의 관객 및 청자,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에서 쓰는 경어의 기능을 말한다. 특히, 사적인 관계에서 친분이 있는 관계라 하여도 공석에서 예의를 차려 말하는 경우를 접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어표현과 대도되는 일본 경어표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품격유지의 기능을 살펴보자. 품격유지는 경어를 사용하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교양 등을 나타내 주는 기능으로 미화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상대와의 거리 유지 기능은 초면일 경우나, 일정거리를 유지 하고 싶은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경어를 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지표현의 완곡한 표현 기능으로서의 경어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예로, 부모가 아이들을 혼 낼 때 쓰는 경어의 표현을 들 수 있다. 특히 완곡한 표현으로 쓰는 경어는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심리적 작용과 더불어 금지의 표현을 하는 자신의 품위 또한 지속되게 하는 기능까지 있으므로 복합적인 성격을 띈 다고 할 수 있다.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어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대인관계를 윤택하게 하고 자신의 품위 또한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발휘 해 왔으나 자본주의의 발달과 평등주의 의식의 확산으로 인하여 경어의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경어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와 관계없이 실생활에서 경어의 중요성을 부정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 실정에 맞는 올바른 경어의 교육과 경어에 관한 연구가

5) 백동선『일본어의 대우표현 연구』, 보고사, 2003, p.31

더욱 활발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요시오카(吉岡)의 分類

요시오카의 이론은 현행 학교문법에서 따르는 3分類로, 『日本語口語法』,1906에서 三分法이라 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尊敬語: 상대방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말로 상대방의 동작 · 상태 · 소유물 등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다.
「おっしゃる」「なさる」「下さる」「お読みになる」「お読みくださる등이 있다.
② 謙譲語: 겸양어는 자신과 관계있는 사항을 낮춰서 상대방을 높여 경의를 표하는 말이다.「いたす」「いただく」「うかがう」「さしあげる」등이 있다.
③ 丁寧語: 상대방에게 정중한 말로써, 경의를 표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生きます」「本です」등이 있다.

(2) 쓰지무라의(辻村)[6] 分類

쓰지무라는 삼분설의 한계를 지적하고 경어를 다시 분류했다. 큰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素材敬語와 対者敬語로 구분 짓는 데 있다. 素材敬語는 본질적으로 소재의 上下尊卑의 양태를 표현 하는 경어로 화자의 敬意, 縑意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어를 일컫는다. 素材敬語는 다시 尊敬語(=上位主體語)와 謙譲語(=下位主體語), 美化語로 나누어 진다.

対者敬語는 보통 丁寧語로 부르며, 話者가 듣는이에 대하여 조심성 있고 정중하게 임하는 기분을 나타내는 大愚表現이다. 그러나 丁寧語는 美化語에 가까우나, 美化語가 말하는 사람의 기분을 직접 표현 하는 것에 대해, 丁寧語는 話者의 기분을 표현하는 待遇法이라는 것이 차이점 이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Ⅰ. 素材敬語(소재경어, 표현소재에 관한 경어)
  ⑴ 上位主體語(=경칭)
    絶対上位主體語(=절대경칭)
    関係上位主體語(=관계경칭)
  ⑵ 下位主體語(=겸칭)

6) 辻村敏樹『敬語論考』, 明治書院, 1992, pp.226~228

絶対下位主體語(=절대겸칭)
関係下位主體語(=관계겸칭)
⑶ 美化語(=미칭)
Ⅱ. 対者敬語(=근칭: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

쓰지무라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素材敬語에 美化語를 위치시킨 것 이라 할 수 있다.

(3) 야마다요시오(山田孝雄)[7]의 分類

야마다요시오는 경어를 문법적 문제로 다루어 敬語를 분류했다. 称格과 연관지어, 敬称과 謙称으로 대별 되는데, 이것은 第一人称 句에는 謙称(手前, いただく, です)등을 사용하고 第二, 三人称 句에는 敬称(あなた, おつしゃる, くださる) 등을 사용하는 것을 敬語法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야마다요시오는 敬称을 청자 혹은 第3者에게 존경의 의미로 사용하고 謙称은 겸손을 드러내는 말로써, 타인에게 話者 자신을 가리키거나 話者가 속해 있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日本語 敬語는 여러 관점에서 분류가 시도 되고 있는데 學者에 따라 內容이나 分類 基準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크게 2分類 와 3分類로 나누어지는데 2分類는 복잡한 경어를 대변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3分類 이상의 이론은 敬語의 남용이라 우려되는 점이 있어 本稿에서는 대표적인 학자의 이론을 살펴보았고, 학교에서 쓰이는 일본어 敬語에 중점을 두고 3分類의 이론을 따랐다.

7) 山田孝雄 『敬語法の研究』寶文館出版, 1924, p.28

第3章. 言語的, 非言語的 表現要素로서의 敬語

3-1 言語的 表現要素로서의 敬語

언어적 표현요소로서의 경어는 보통 경어라고 하는 학교문법상의「尊敬語」「謙讓語」「丁重語」「美化語」로 분류하고 尊敬語는 명사, 동사로 세분화 하여 설명하고 丁寧語(丁重語)는 명사, 동사, 조동사 및 기타로 謙讓語는 명사, 동사로 세분화 하여 기술해 보기로 한다. 또, 현재는 7차 교육과정에서 8차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7차 교육과정의 숱한 교과서 분석을 되풀이 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 교과서에서 경어의 항목별 사용 빈도만 조사하고 그에 따른 세분화된 분석은 생략하고 서술 하였다.

3-1-1 尊敬語

화제의 인물(행위, 소유)에 대한 표현으로 화자가 그 인물의 경의적 배려를 나타내는 경어. 화제의 인물은 직접적인 상대이며 제 3자일 때도 있다. 경칭 · 존칭이라고도 한다.[8)]

또, 『日本語教育事典』에서는 尊敬語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名詞: あなた、かた、こちら、あちら、そちら、どちら (代名詞)
　　お、御、おん (接頭語)
　　さま、さん、どの、うじ (接尾語)
動詞: なさる、いらっしゃる、おっしゃる、あがる、召す、
　　召し上がる、みえる、くださる
形式動詞:お~になさる、お~あそばす、お~なさる、お~くださる ~してくださる
形容動詞:　お~ (おきれいだ、おうつくしい)
助動詞:　れる、られる

8) 小川芳男 外, 日本語教育學會『日本語教育事典』2000, p.231

(1) 尊敬語의 接頭語 分析

교과서에 실린 존경어 접두어를 5가지로 나누고 항목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2) 尊敬語의 接頭語 分析

교과서 / 접두사	교학A	교학B		진명A	진명B		대한		블랙		지학		천재		민중	시사	성안	학문	합계	비율(%)
	Ⅰ	Ⅰ	Ⅱ	Ⅰ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Ⅰ	Ⅰ	Ⅰ		
お+名詞	4	39	23	8	7	24	17	26	16	26	20	22	26	20	8	48	30	5	369	61.9
ご+名詞	1		2		2	10	2	6	5	3	1	6	3	5		4	2	2	54	9.1
お+형용사			2					2		4				1					9	1.5
お+형용동사	6	3	3	6	2	29	6	13	5	3	9	34	1	3	3	17	12	6	161	27
ご+부사		1												2					3	0.5
합계	11	43	30	14	11	63	25	47	26	36	30	62	30	31	11	69	44	13	596	100

① お＋名詞

おたんじょび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민중Ⅰp.184) おにいさんは　おいくつですか。(교학BⅠp.36)

お＋名詞의 형식은 접두어의 형식 중에서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② ご＋名詞

ご質問は　イーメルでどうぞ。(블랙Ⅰ p.136)

ご＋名詞의 형식도 비교적 자주 사용 하는 표현이다.

③　お+形容詞

현행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Ⅰ에서는 お+形容詞의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일본어교과서 Ⅱ에서 등장하고 있다.

④ お＋形容動詞

だんだんあたたかくなってきましだが、お元気ですか。（성안Ⅰp.142） なるべくゆっくりやすんだほうがいいですよ。お大事に。(교학AⅠp.149)

お＋形容動詞의 표현은 교과서 마다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⑤ ご＋副詞

こんなたかいものを…、ありがとう。どうぞごゆっくり。

교과에서 잘 쓰이지 않는 표현으로 교학B Ⅰ에서 1회 천재Ⅱ에서 2회 0.5% 수록되어 있다.

(2) 尊敬語의 動詞 分析

교과서에 수록된 존경어 동사를 6가지로 나누고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尊敬語의 動詞 分析

교과서 / 동사	교학A	교학B		진명A	진명B		대한		블랙		지학		천재		민중	시사	성안	학문	합계	비율(%)
	Ⅰ	Ⅰ	Ⅱ	Ⅰ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Ⅰ	Ⅰ	Ⅰ		
いらっしゃる	3	8	3	10	21	4	4	6	16	27	11	10	3	19	7	11	4	7	174	48.5
おっしゃる						1				2				7		3	1		14	3.9
なさる	1		2	3						4		1		6		3	1		21	5.8
めしあがる			1														1		2	0.5
くださる	8	5	1	30	8	1	8	2	6	1	25	9	4	2	4	22	4	5	145	40.4
ごらんになる								2		1									3	0.9
합계	12	13	7	43	29	6	12	10	22	35	36	20	7	34	11	39	11	12	347	100

① いらっしゃる

いらっしゃいませ。（민중Ⅰp.60） 今先生はどちらにいらっしゃいますか。(대한Ⅱp.111)

いらっしゃる는 존경어 동사 중 빈도수가 가장 높았으며, 行く의 의미 9회, 来る의 이미137회로 나타났고 いる는 いらっしゃいませ의 형태로 인사기능의 표현의 빈도가 높았다.

② おしゃる

しごとが終わったら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진명Ⅱp.89)

おしゃる는 교과서에서 14회 정도만 수록되어 있지만 기본어휘에 속한다. 그러므로 각 과에 걸쳐 고루 분포 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③ なさる

どうぞお休みを大せつになってください。(지학Ⅱp.163) 何なさいますか。(블랙Ⅱp.57)

なさる역시 낮은 빈도 임에도 기본어휘에 속한다. 고른 분포가 바람직 하다.

④ めしあがる

じゃ、おかしをもっとめしあがってください。(교학BⅡp.67) どうぞ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진명AⅡp.51)

존경어 동사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めしあがる는 기본어휘에 속하지 않으므로 2회에 걸친 설명이 전부였으나, 실생활에서는 사용하는 어휘이므로 정확한 지도가 필요하다.

⑤ くださる

コーヒをください。(시사Ⅰp.60) どうぞおあがりください。(진명AⅠp.174)

⑥ ごらんになる

いま、ごらんになったのはテクォンドです。(대한Ⅱp.168)

ごらんになる는 2종 교과서에만 수록 되어 있으나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이므로 교과서별 고른 분포가 있어야한다.

(3) 尊敬語의 形式動詞 分析

교과서에 수록된 존경어 형식 동사를 4가지로 나누고 항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表4) 尊敬語의 形式動詞 分析

교과서 / 형식동사	교학A	교학B		진명A	진명B		대한		블랙		지학		천재		민중	시사	성안	학문	합계	비율(%)
	Ⅰ	Ⅰ	Ⅱ	Ⅰ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Ⅰ	Ⅰ	Ⅰ		
ご(お)~になる		5	8			9	11	11	2	18		2	14		6	2	4	2	94	8.1
ご(お)~になる	1	2	6	3	1		4	1		19		17		4			23		81	7
てください	67	73	47	95	36	31	55	82	59	48	35	42	33	63	52	44	46	61	969	83.8
お~です			1			2		1				1				8			13	1.1
합계	68	80	62	98	37	42	70	95	61	85	35	62	47	67	58	54	73	63	1157	100

① お（ご）~になる

どんな料理をお作りになりますか。(블랙Ⅱp.78) どんな物をおかいになりますか。(성안Ⅰp.119)

お（ご）~になるは 몇 권을 제외한 교과서에 모두 수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형식동사를 바꾸는 연습을 주의해서 지도해야 한다.

② お（ご)~くださる

分からないことはごしつもんください。(블랙Ⅱp.17) どうぞ、おあがりください。(진명AⅠp.100)

존경어 형식동사의 대표적인 표현이나 수록 빈도가 비교적 낮다. 고르게 수록되고 빈도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て くださる

これからもがんばってください。(교학AⅠp.69) おしえてください。(학문Ⅰp.116)

~て くださるは 존경어 형식 동사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중요 어휘로 기본어휘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실생활에서의 응용도 높다. 그러나 존경어로서의 기능은 약해지고, 명령의 완곡한 표현으로 의미가 변화가 되고 있다.

④ お~です

どんなものをおさがしですか。(지학Ⅱp.67)

존경어 형식 동사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4) 尊敬語의 助動詞 分析

존경어 안에서 조동사는 활발하게 쓰이는 조동사 중 하나이다. 이유는 거의 모든 동사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라 판단된다. 교과서에 나오는 れる·られる의 중심으로 교과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5) 尊敬語의 助動詞 分析

교과서 / 조동사	교학A	교학B		진명A	진명B		대한		블랙		지학		천재		민중	시사	성안	학문	합계	비율(%)
	Ⅰ	Ⅰ	Ⅱ	Ⅰ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Ⅰ	Ⅰ	Ⅰ		
れる (られる)						1						1							2	100
합계						1						1							2	100

존경어 조동사의 기능을 하는 れる·られる의 사용빈도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특히 학습자는 가능표현의 れる·られる의 표현과 혼동할 여지가 크므로, 주의해서 전달하여야 한다.

종합하여 보면 일본어 교과서에서의 尊敬語는 사용 빈도수가 높으나, 아쉽게도 각 단어나 문장의 뜻을 설명하고 그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 분석을 토대로 8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에서는 이를 보완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 한다.

3-1-2 謙讓語

謙讓語는 화자가 대상인 청자나 제3자에 대한 尊敬의 기분으로 화자의 동작대상, 객체가 되는 인물에 관하여 경의를 나타내기 위한 그 인물 자체, 혹은 그 인물과 관계된 동작, 존재, 성질, 상태 등의 표현에 있어서 화제의 동작주를 낮추는 표현을 말한다.[9)]

또, 『日本語教育事典』에서는 謙讓語를 화제의 사람 두 사람 사이의 행위에 대

9) 辻村敏樹 外,『日本語 4 敬語』, 岩波書店, 1977, pp.15~29

해서 화자가 그 중의 상위자에 대하여 경의를 나타내는 경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겸양어는 화자가 자신의 말과 행동, 소유물 등을 낮춰서 상대방을 우의적으로 높이는 언어형식이다. 우선 자신의 동작에 お、ご를 붙여 겸양의 뜻을 나타낼 수 있고, 동사를 바꾸어 겸양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자기 혹은 자기 쪽을 낮추는 말로 겸양표현을 할 수 있다. 세분화 하여 살펴보면, 화자자신의 말이나 행동, 소유물을 낮춰서 상대를 높이는 겸양의 뜻을 나타내는 형식동사가 있다. 또, 존경표현과 마찬가지로 형식동사가 없는 일반 동사의 お+ますけぃ+する형식으로 나타내는 표현 등이 있다. 이를 形式動詞, 動詞, 接頭辭의 차례로 교과에 수록되어있는 교과 표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謙讓語의 形式動詞 分析

교과서에 수록된 겸양어 형식동사를 8가지로 나누고 각 항목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表6) 謙讓語의 形式動詞 分析

교과서 / 형식동사	교학A	교학B		진명A	진명B		대한		블랙		지학		천재		민중	시사	성안	학문	합계	비율(%)
	Ⅰ	Ⅰ	Ⅱ	Ⅰ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Ⅰ	Ⅰ	Ⅰ		
お~する	23	26	25	17	19	21	30	30	41	27	9	40	11	6	15	14	24	5	383	85.3
ご~する			4			2		1		4		4							15	3.3
お~いたす													3	1					4	0.9
ご~いたす			1					1									1		3	0.7
お~いただく												2							2	0.5
~ていただく			1			1		14									4		20	4.5
~させていただく								1											1	0.2
~おるて	1		4		1	2		1		1		6	5						21	4.6
합계	24	26	35	17	20	26	30	48	41	32	9	52	19	7	15	14	29	5	449	100

① お~する

ごあいさつします。(진명AⅡp.19) ちょっとおききしたいんですが。(대한Ⅱp.32)

お(ご) ~する는 존경해야 할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다. お(ご) ~する는 자신의 행동에만 사용하며 그 행동이 미치는 상대를 높여 겸손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그 역할이라 할 수 있다.

お(ご) ~する는 謙讓語 형식동사 중에서 높은 빈도수 85.3%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ご~する

앞의 お~する가 빈도수가 높았던 것에 비해 ご~する의 사용률은 주로 교과서Ⅱ에서 쓰이고 있고, 빈도수 또한 낮다. お~する에 비해 ご~する는 한자어 앞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③ お~いたす

今年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천재Ⅰp.177) 私たちがお案内いたします。(대한Ⅱp.168)

お~いたす는 ご~する에 비해 더욱 겸손한 표현으로, 교과서에 사용된 빈도수는 낮은걸 알 수 있다.

④ ご+いたす

ご+いたす는 ご~する보다 높은 경의 표현으로 매우 낮은 0.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⑤ お~いただく

10分後にもう一度お電話いただけますか。(지학Ⅱp.17)

~ていただく와 혼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⑥ ~させていただく

むすこを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대한Ⅱp.157)

~させていただく는 겸양도가 가장 높은 표현형식으로, 학교 내 에서의 발표 및, 현대 일본어에서 많이 쓰는 일본어이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낮은 빈도를 보인다.

⑦ ~ておる

~ておる는 정중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교과서 에서는 낮은 빈도를 보인다.

(2) 謙讓語의 接頭辭 分析

교과서에 수록된 일본어 접두사 お+名詞 /ご+名詞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7) 謙讓語의 接頭辭 分析

교과서 / 접두사	교학A	교학B		진명A	진명B		대한		블랙		지학		천재		민중	시사	성안	학문	합계	비율(%)
	Ⅰ	Ⅰ	Ⅱ	Ⅰ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Ⅰ	Ⅰ	Ⅰ		
お+名詞	7	34	54	8	16	20	20	42	51	39	19	30	23	45	53	45	18	27	551	76.1
ご+名詞	5	12	15	6	22	4	3	14	13	12	10	2	1	15	6	19	4	10	173	23.9
합계	12	46	69	14	38	24	23	56	64	51	29	32	24	60	59	64	22	37	724	100

① お+名詞

お電話かわりますから。(시사Ⅰp.119) お願いがありますが。(지학Ⅰp.105)

お+名詞의 표현은 각종 교과에 빈번하게 수록되어 있고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② ご+名詞

ごしょかいいたします。(교학BⅡp.158) ごあんないいたします。(대한Ⅱp.168)

ご+名詞의 표현은 수록 빈도가 낮아 お+名詞의 표현과 대조가 된다. 수록된 ご+名詞의 표현중 ご案内의 표현이 가장 많이 쓰였다.

(3) 謙讓語 動詞 分析

교과서에 수록된 일본어 겸양어 동사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8) 謙讓語의 動詞分析

교과서 / 동사	교학A	교학B		진명A	진명B		대한		블랙		지학		천재		민중	시사	성안	학문	합계	비율(%)
	Ⅰ	Ⅰ	Ⅱ	Ⅰ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Ⅰ	Ⅰ	Ⅰ		
いたす						1				3							3		7	4.2
まいる	1		1							2				1			1		6	3.6
おる								1		1							1		3	1.8
うかがう			1					4		11							8		24	14.5
甲す		4	9		3	9	5	4		8	3	5	3	1		1	5	1	61	36.7
いただく	1	3	1	5	12	1			9	3	8	1			4	9	6	1	64	38.6
差し上げる						1													1	0.6
합계	2	7	12	5	15	12	5	9	9	28	11	6	3	2	4	10	24	2	166	100

① まいる

いってまいります。(교학BⅡp.26)

예전의 まいる라는 표현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뵈러 간다는 의미가 강했으나, 현대 일본어 에서는 きます의 높임말이라는 의미가 강해지고 있다.

② うかがう

ちょっとうかがいしたいんですが。(대한Ⅱp.41) 先生の趣味は料理だとうかがいましだが。(블랙Ⅱp.79)

うかがう는 중세 이후에 사용되었고, 방문하다의 의미로 쓰여진 것은 에도시대 이후 부터이다. 교과서 에서는 うかがう에 お~する의 형태가 11회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③ いただく

電話いただけますか。(지학Ⅱp.17) いただきます。(교학BⅠp.54)

いただく는 먹다, 마시다, 받다의 의도로 쓰이나, いただきます。(교학BⅠp.54)는 식사 전에 하는 정형화 된 인사표현이다.

④ おる

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천재Ⅰp.175) 今、おりませんか。(대한Ⅱp. 171)

おる는 いる의 겸양어로 낮은 빈도로(1.8%) 수록 되어 있다.

⑤ 差し上げる

先生に差し上げます。(진명BⅡp.98)

『差し上げる』는 동작을 하는 행위자가 비행위자에게 은혜를 주는 것으로 손윗사람이거나 동등한 관계라 하더라도 친밀한 대상이 아닐 경우에 사용한다. 한국어 표현으로『드리다』에 대응되며 본동사『~て差し上げる』보조동사로 사용되는『~て差し上げる』의 경우『~해드리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학습자들이 이『~て差し上げる』를 남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웃어른의 물건을 들어주는 경우 한국어에서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이는 자신이 상대방을 위해 일부러 그러한 행위를 하여 은혜를 베푸는 듯한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10]

⑥ いたす

どちゃくいたします。(진명BⅡp.151)

겸양어 동사 중 낮은 빈도로 수록 되어 있으며, いたす는 상대에게 자신을 포함한 자기측의 사람을 상대적으로 낮추어 말함으로써, 격식을 차리는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4.2%의 낮은 빈도수를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7차 교육과정에서의 겸양표현은 특수 겸양동사에서 교사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문제를 찾아 낼 수 있다. 겸양특수 동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일본경어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예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주의해서 지도를 해야 하지만 현 교과서 에서는 겸양동사가 잘 쓰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 할 수 있었다. 이 점 또한 개정교과서가 안고 가야할 과제이다.

10) 오미선 외, 『일본어 문법 Level up』다락원, 2004. p.151

3-1-3 丁寧語

정중어에 관련된 학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중어는 언어의 주체(화자· 쓰는사람)가 상대(청자· 독자)에 대해 경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 외에도 손윗사람이나 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긴장감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언어주체 자신의 품위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 그 일부를 미화어로 보는 설도 있다.[11)]

정중어는 직접 대화하는 상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경의를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존경어나 겸양어가 화제가 되는 인물을 높이 대우하여 말하는 방법인데 비해 정중어는 직접 자기말을 듣는 사람을 대우한다는 태도인 것이다. 즉, 정중어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손님을 맞이하듯이, 자기 말씨의 매무새를 정돈하는 표현법으로서, 듣는 사람을 대우하는 표현법을 말한다. 보통 정중어는 정중의 조동사「です」「ます」를 붙여서 말하는 것으로 이 말만 바르게 써도 상대에 대해 실례를 면할 수가 있다.[12)] 또한, 정중어에서 미화어를 따로 분류해 보려는 시도도 찾아 볼 수 있다.

美化語란,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품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표현의 소재가 되는 사물이나 동작, 상태등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말이다. 경어 전체를 삼분법으로 나눌 때는 丁寧語(丁重語)에 넣는 수도 있다.

---

11) 北原保雄 外,『日本文法事典』友精堂, 1981, p.331
12) 金孝子 『일본어경어표현』(주)시사영어사, 1981, p.76~77

(1) 丁寧語의 接頭辭 分析

정중어는 상대와 나의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고, 말하는 이의 품위 유지와 친절함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교과서에서의 정중어의 접두사 분석 및 정중어 사용 빈도를 세분화 하여 분석 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9) 丁寧語의 接頭辭 分析

교과서 / 접두사	교학A	교학B		진명A	진명B		대한		블랙		지학		천재		민중	시사	성안	학문	합계	비율(%)
	Ⅰ	Ⅰ	Ⅱ	Ⅰ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Ⅰ	Ⅰ	Ⅰ		
お+名詞	7	34	54	8	16	20	20	42	51	39	19	30	23	45	53	45	18	27	551	76.1
ご+名詞	5	12	15	6	22	4	3	14	13	12	10	2	1	15	6	19	4	10	173	23.9
합계	12	46	69	14	38	24	23	56	64	51	29	32	24	60	59	64	22	37	724	100

① お+ 명사

おふろにいってもいいですか。(교학AⅠp.116)
おちゃがありますが。(진명BⅡp.40)

お+ 명사의 표현은 전 교과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お+ 명사표현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교과서는 교학BⅡ로 69회에 걸쳐 기술되어 있었다. 특히, お正月등 문화와 관계된 표현이 수록 되어있어, 종합적인 경어능력을 길러주기에 좋다.

② ご+ 명사

ひるごはんは何時ごろたべますか。(시사Ⅰp.94)
7時はんにばんごはんを食べます。 (진명BⅠp.103)

ご+명사의 표현은 お+명사의 표현에 비해 사용빈도(23.9%)가 낮았다. 또, 전부 『ご飯』에 관한 단어들이라는 것이 눈에 띄는 점이다.

(2) 丁寧語의 動詞 分析

일본어 교과서에 수록된 정중어의 동사를 살펴보고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10) 丁寧語의 動詞 分析

교과서 / 접두사	교학A	교학B		진명A	진명B		대한		블랙		지학		천재		민중	시사	성안	학문	합계	비율(%)
	Ⅰ	Ⅰ	Ⅱ	Ⅰ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Ⅰ	Ⅰ	Ⅰ		
ござる						1													1	12.5
でござる			3					4											7	87.5
합계			3			1		4											8	100

① ござる

お茶、コーヒ、ジュースがございます。(진명BⅡp.151)

ある의 의미를 갖는 ござる는 수록 빈도가 거의 없었고, 본래의 의미로 사용되기보다 관용화된 인사표현으로서의 기능이 수록되어 있었다.

② でござる

ごちらはATBでございます。(대한Ⅱp.41)

でござる의 표현도 ござる와 같이 관용화된 인사표현 등으로 쓰이고 있다.

정중어 분석을 하면서 일본어에서 정중함을 나타내는 「です·ます」형태의 사용 빈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문제점 또한 발견 되었다. 문제점은 대부분「です·ます」체가 2과에서 비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です·ます」체는 학생들이 경어를 배우는 첫 걸음으로 매우 유용한 표현수단이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을 경어라고 굳이 분류해 뒤쪽에 분류 할 것이 아니라 교과의 처음부터 접하여, 경어에 관한 두려움을 없애 주는 것 또한 개정교과서가 풀어야 할 과제점으로 남는다.

3-2 非言語的 表現要素로서의 敬語

경어의 올바른 지도는, 언어적 표현 뿐 아니라 복장, 인사 등 비언어적 경어표현을 수반하는 종합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이는 문화적 요소와도 관련이 깊다. 本稿에서는 교과서에 실린 문화관련 부분 중 경어 표현의 일부로 보고 학습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 보고, 다가 온 8차 교육과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점을 도출 해 보았다.

(표11) 非言語的인 敬語表現의 要素

교과서 / 비언어적 요소	교학A	교학B		진명A	진명B		대한		블랙		지학		천재		민중	시사	성안	학문	합계	비율(%)
	I	I	II	I	I	II	I	II	I	II	I	II	I	II	I	I	I	I		
복장	1	2					1		1		1		1		1		1		9	31
식사				1	1		1		1								1		5	13.8
인사				2		2			1							1		2	8	27.6
방문				1			1			1									3	10.3
전화							1					1						1	3	6.9
몸동작						1													1	3.4
편지											1								1	3.4
소개							1												1	3.4
합계	1	2	0	4	1	3	5	0	3	1	2	1	1	0	1	1	2	3	31	100

(1) 식사

ラーメンをたべました。(교학사B, 6과)

おちゃ、どうぞ。
いただきます。 (대한Ⅰ,9과)

ご飯やみそしるはどやって食べますか。
ー ご飯やみそしるはてにもって食べます。 (성안당, 7과)

これはすきやきです。 (진명AⅠ, 3과)

しおラーメンをたべました。(진명AⅠ, 3과)

식사할 때, 음식 그릇을 한 손으로 들고 젓가락만을 주로 사용하는 것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며 모든 음식은 한 사람 분씩 덜어서 따로 놓고 먹는다.
(진명BⅠ, 1과)

식사예절은 각 나라에 따라 다른 만큼 중요시 다루어야 될 문화이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식사예절과 비교하여 학습자가 알기 쉽게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일본의 식사예절 중 장례문화와 관련 된 젓가락 사용 시 금기시 되는 행동 및 정형화 된 경어 표현인 식사 전 인사와 식사 후 인사의 교육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식사예절이 수록 된 교과서는 총 3종에 불과 했다. 식사예절이 수록된 교과서에도 식사 시 인사의 내용은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개정 될 8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전화

もしもし。
ー山田さんおねがいします。(대한Ⅰ, 5과)

일본에서는 친구 집에 전화를 할 때, -상대의 이름이 아닌 성(姓) -さんのおたくですか。라고 확인 한 후에 ー자신의 성(姓)ーともうします。 라고 한다. 그리고 전화를 끊을 경우, 친하면 じゃあね。친하지 않으면 しつれいします。라고 합니다.
(학문Ⅰp.172)

디지털 시대라 일컫는 현대 사회에서 전화예절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일본에서의 전화 받기 예절은 신입 회사원들에게 경어표현과 함께 시간을 할애하여 재교육을 시키는 부분이다. 2종 교과서에서 2회에 걸쳐 낮은 빈도로 다루고 있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 질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유학생의 수도 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정 될 교과과정에서의 전화 예절은 중요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3) 방문

おざします。
ー はい、どうぞ。 (대한Ⅰ, 2과)

일본 집을 방문 할 때에는 들어갈 때 신발을 돌려놓고 들어가는 게 좋다. 집에 들어서면 슬리퍼를 갈아 신지만 다타미방에서는 슬리퍼를 벗는다. 다타미방에 앉을때는 무릎을 꿇고 정좌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블랙Ⅱ, 10과)

일본인들은 선물을 교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의 집을 방문할 때나 축하할 때는 선물을 합니다. 특히 연말 선물과 7월 중순의 백중 선물은 평소 신세를 진 분에게 표하는 계절 인사로 관습 화 되어 있습니다. (시사Ⅰ, 7과)

방문 시 필요한 경어표현, 예를들면 「ごめんください」「お世話になります」및 병문안 등 특수 한 상황에서의 방문(결혼식, 장례식, 병문안)시 정형화 되어 있는 경어표현에 관한 수록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3종교과서, 3회) 또한, 방문 시 허락이 없이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갈 때 신발을 놓는 방향이나, 들어가면서 해야 하는 경어 표현에 관한 수록이 필요 하다.

(4) 인사

일본인들은 인사를 잘하며,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쳤을 때에는 반드시 “ごまんなさい、すみません”이라는 사과의 인사를 한다. 단, 모르는 사람끼리는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 또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잘 먹겠습니다(いただきます)”라고 말하는 것이 사회의 관습이다. 손님에게 음식을 권하면서 “아무것도 차린 것은 없습니다만, 맛있게 드세요(ごちそさま)”라고 말한다든지, 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인사말인 “어디가세요(どこかえおでかけですか)”는 우리말과 비슷하다.

(진명BⅡ 1과)

초면 인사: はじめまして。わたしは ユンソラです。
どうぞ よろしく。
ごちらこそ、どうぞ よろしく おねがいします。

일상 인사: せんせ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
あべくん、おはよう。

축하와 감사: おたんじょうび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どうも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대한Ⅰ, 1과)

인사표현은 경어의 시작이라 할 만큼 경어에서 갖는 비중이 높은 부분이다.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인사표현은 크게 만남, 헤어짐, 소개, 안부, 칭찬, 격려, 축하, 감사, 사과, 위로 등 관용적으로 쓰이는 경어 표현부터 시작해 비언어적 요소로서의 경어 표현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인사표현을

언어적 표현으로만 다루고 있어서, 종합적 경어로서의 비중이 낮다(5종 교과서, 8회)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8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대면의 인사 시 심가야 할 행동이나 인사 표현과 함께 비언어적 요소로서의 경어 표현이 두루 포함된 교과 내용으로 바꿔야 종합적인 경어를 학습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5) 복장

いつ　着るんですか。 기모노를 접어 봅시다. (준비물 및 접는방법 생략) 기모노(きもの)는 일본의 전통 의상으로서 설날이나 결혼식, 성인식, 장례식 등 특별한 날에 입고 평상시에는 잘 입지 않는다. (대한Ⅰ, 11과)

교과서에 실린 대표적인 복장으로 기모노를 들 수 있다. 기모노를 입는 경우가 9회에 걸쳐 수록되어 있었고 사진과 함께 수록된 점이 학습자의 흥미를 끌게 하였다. 하지만 기모노 착용 시 갖추어야할 예절 등이 제시되어있지 않았으므로 수업 시 함께 지도해야 하겠다. 복장에 관한 표현은 비교적 여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었고, 현대에 걸맞는 복장예절이 첨가 되어야 할 점이다.

(6) 몸동작(ジエスチャー)

Ⅰ. 얼굴 표정 일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어서 표정이 풍부하지 않는 편이다. Ⅱ. 인사의 자세 일본인은 사람을 만나거나 헤어질 때 악수를 잘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머리와 허

리를 숙여서 인사를 한다. 실내에서는 무릎을 꿇고 손을 앞으로 모아 바닥에 대고 몸을 숙여서 절을 한다.

Ⅲ. 앉는 자세
일본인은 다타미나 마루에 앉을 때 발을 모아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바로 펴고 앉는다. 이런 자세를 정좌라고 하며, 가장 예의바른 자세로 여겨지고 있다.

Ⅳ. 몸짓과 손짓
일본인은 보통 몸짓이나 손짓이 적은 편이라고 하지만 대화 할 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뜻으로 고개를 많이 끄덕이며, 자신을 가리킬 때에는 일반적으로 검지 손가락으로 자신의 코를 가리킨다.

(진명BⅡ 1과 p.22)

표정이나 자세, 몸짓은 비언어적 경어표현의 대표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교과서에 수록 된 빈도는 극히 일부분 이었다. 제스처는 비언어적 경어요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다루고 있지 않는 일부 교과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소개

일본인은 보통 첫 인사를 나눌 때에는 서로 명함을 주고 받는다.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에는 아랫사람을 윗사람에게, 남자를 여자에게, 가족을 손님에게 먼저 소개한다.

わたしは　すすむです。
(저는 스스무입니다.)
こちらは　ユンソラです。
(이쪽은 윤소라씨입니다.)

(대한Ⅰ, 1과)

소개시 지켜야할 예절(누구를 먼저 소개 할지, 전체 이름보다 보편적으로 성만 소개한다.)등은 대한교과서 에서만 찾아 볼 수 있었다. 소개는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고, 중요한 예절이므로 다른 교과서 에도 첨 가 되어야 하겠다. 소개예절은 대한Ⅰ에서만 다루어 져 있었으며, 소개 할 때의 인사표현, 표정 등이 수록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8) 편지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직장을 옮겼을 때에도 소식을 전하며 한창 더운 여름에는 「暑中お見舞い 」라고 하여 문안 인사를 한다.

(지학Ⅱ, 10과)

일본에서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잃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해 나가기 힘들다.

(지학Ⅰ, 7과)

手紙が 遅く なって ごめんなさい。
日本での 生活は 楽しかったです。
もう 一度 日本へ いって みたいです。どうぞ みなさんも 韓国へ あそびにきて ください。
では また。 (대한Ⅰ, 12과)

이메일, 핸드폰 사용증가로 인하여 편지 형식을 잘 모르는 학생의 증가는 비단, 일본의 일 만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 문화에서는 편지문화와 관련된 명절 등이 있고 하나의 약속처럼 선물과 함께 편지나 엽서를 보내는 일들이 많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일본어 경어사용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편지 안에서 정형화되어 쓰이는 경어 표현과 비언어적인 경어 표현 등을 교과서에 수록해야 한다.

현행 교과서 에서는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지학Ⅰ에서 1회 다루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대한Ⅰ, 12과에서 다루고 있는 편지형식에 관한 내용은 비언어적 경어요소라고 보기에 적합하지 않고 편지의 형식 등이 수록되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다.

언어적 표현과 함께 글자체, 종이 등 비언어적 표현요소를 포함하여 첨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 된다.

살펴본 봐와 같이 현행 교과서의 경어는 중요성에 비해 수록 비중이 낮다는 문제점과 함께, 수록 내용 또한 언어적 표현에 치중 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문제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 8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관건이 되어 질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교과의 개정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현행 교과서의 부족한 부분을 수업 연구를 통해 보완 해 나가는 교사의 노력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第4章. 敬語의 誤用과 敎師의 役割

지금 까지 경어의 전반적인 서술과 이를 토대로 한 7차 교육과정의 일본어 경어의 문제점 및 8차 교육과정에서 보완 되어야 할 점들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경어수업 개발에 관하여 모색 해 보고자 한다.

효율적인 경어수업 개발을 위해서는 현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수업 후 학습자들이 겪는 오용에 관해 분석 하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항목이다. 특히, 일본어 학습 시 어려운 부분으로 경어를 꼽는 만큼, 일본어 학습자의 오용 또한 빈번하다. 앞에서 살펴본 사항들 즉,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요소로서의 경어를 아는 것도 중요 하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구사 하느냐에 따라 일본어의 유창성의 등급이 나누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일본어 학습자 들이 겪는 오용에 관하여 원인과,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교사의 역할과 효율적인 수업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오용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어의 잘못쓰임을 칭하는 단어로 誤用과 誤謬를 들 수 있다. 오류는 진리의 반대어로서, 사실적 오류와 논리적 오류로 나누어진다. 한편, 오용은 제1언어로 하는 자와 제 2외국어를 학습하는 자의 기준에 의해 오용인가 혹은 정용인가를 구분한다.

佐藤洋子는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오용이란 학습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정표현 13)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본어 경어 사용 오용이 가장 빈번 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오용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誤用의 원인은 집단의 반복과 개인의 반복으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으며, 또한 오류가 규칙적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오류의 횟수에 의해 결정된다.

학습자가 언어 습득에 있어 범하는 오류의 원인은 심적 및 외적환경의 상호작용으로서, 그 중요한 원인은 母國語의 干涉, 規則 拡大, 交叉化 현상등이 있다.14)

---

13) 佐藤洋子「誤用례에서 본 表現지도의 問題」早稲田大學言語学研究所, 1984
14) 森田良行「誤用分析 6」『日本語学』11月, 明治書院,1983, p.115

(1) 母國語의 干涉[15)]

모국어 또는 제일언어가 외국어의 학습을 촉진시킨다고 할 때는 正의 轉移, 장애가 된다고 생각 할 때는 敗의 轉移라고 하며 후자의 경우를 干涉이라고 한다.

모국어 간섭은 학습자가 외국어를 공부 할 때 모국어가 방해 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답을 오답으로 이끈다.

a. *大學から卒業します。 (直訳)
b. *この辞典はとても助けます。(役に立つ意)

(2) 規則 拡大

規則 拡大란 목표언어의 복잡성에서 오는 오용으로 불완전한 규칙을 적용 하는 등, 규칙의 일반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오용이다. 이 오용은, 목표어의 규칙을 알면서도 적용할 범위에 대해 정확하지 않아서 오는 오용으로 모국어의 영향과는 관계가 없다.

a. *いだったら b. *きれいくない c. *有名の人

(3) 交叉化 현상

오용의 원인이 모국어의 간섭뿐만 아니라 목표언어의 문법 규칙의 불완전한 적용 등으로 어느 쪽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a. *六詩まで電話をしてください。(までに)
b. *テストは来週ですから、まだしませんでした。

지금까지 오용의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표보았다. 다음은 狀況에 따른 경어 오용에 관하여 분석 해보았다. 분석은 학습자인 학생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學校, 家庭, 社會의 예를 제시해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사의 역할을 모새가면 다음과 같다.

15) 金仁炫, 『韓·日語の対照研究と日本語教育』어문학사, 2004, p191

(1) 家庭에서 使用되는 敬語의 誤用

시대가 변함에 따라 대가족에서 핵가족화가 되면서 呼稱에도 변화가 생겼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르는 호칭은 과거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르는 경우에는 과거와 차이점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어머니가 자식을 다른사람 앞에서 소개 할 때 ~さん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외부인 앞에서 자신의 가족을 尊稱한 표현으로 오용표현 임이 틀림없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런 표현이品位語의 범주로 확대,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손님이 오셨을 때 자신의 가족을 높이는 말을 쓰거나 하는 현상도 현대 가정에서 나타나는 경어표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 あげる의 사용의 의미 또한 '드리다'라는 의미의 あげる에서 '주다'라는 의미로 크게 바뀌었다. 또, 집에 손님이 방문 했을 때 가족끼리 쓰는 언어역시 예의에 어긋나는 오용이 된다.

＊おとうさんがおっしゃいました
(타인에게 자기쪽의 -부모님, 남편, 자식-사람을 존경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うちの花子さんは....
(자신보다 하위의 위치에 있는 자를 높여서 부르는 오용의 경우이다.)

(2) 學校生活에서 誤用되는 敬語의 誤用

예전에는 여성이 사람을 부를 때 ~くん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던 것이 보통이었다. ~くん은 남성만이 동등 또는 아랫사람에게 쓰던 말투로, 여선생은 남학생을 아랫사람으로 취급 할 수 없었던 사회적 풍토에 기인 한다.

하지만 현대에는 그런 관념이 거의 없어져서 여선생들의 ~くん 사용이 확대되고 여학생이 여학생을 君、ぼく로 칭하거나 여학생이 남학생을 ~くん으로 부르는 상황이 어색하지 않게 들리고, ~くん은 남자만 쓰는 말이라는 생각은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또, させていただく는 직역하면 시켜 받는다가 되지만 하겠습니다. 라는 정중한 표현으로 양해를 구하거나 화자가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학교에서させていただく의 표현으로 쉽게 들을 수 있는 표현은 『読ませていただきます』『先生にかえらせていただきます』등 외에도 させていただく의 표현은 쉽

게 들을 수 있는 표현이다.

또,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수단으로 「お」를 사용해 자신이 특별한 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

＊おこんばんは
＊おサイダ
＊お教室
＊Xに１をいれてあげると
(교사자신의 품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나 엄밀히 따지면 오용례에 속한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의 경어의 변화는 과거에는 오용의 범주에 속했으나 현 실정에서는 오용이라 보기 어려운 분위기가 확대 되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경어 사용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나, 언어는 생성, 발전, 소멸되는 역사성을 갖는 것처럼 경어 또한 변화 하는 게 시대에 걸 맞는, 경어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형식에 지나치게 맞지 않는 경어가 확산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다는 점 또 한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까지 경어의 전반적인 서술과 이를 토대로 한 7차 교육과정의 일본어 경어의 문제점 및 8차 교육과정에서 보완 되어야 할 점들을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후 겪는 오용의 원인 및 형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경어 수업 개발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3) 社會에서 使用되는 敬語의 誤用

사회에서 사용하는 경어의 오용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어의 오용보다 오용임을 알아차리기 쉽다. 그 이유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용되는 경어의 오용은 외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회에서 쓰이는 경어의 오용은 외부사람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경어의 오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선, 사회에서 쓰이는 호칭을 살펴보면 회사에서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부터 문제가 된다.

평소에 쓰던「わたし」라는 표현은 표준어 이지만 사용하기가 어렵고「おれ」나「ぼく」는 가벼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 또, 상대방을 지칭하는 표현에서도, 상대의 직책이 확실히 나타나 있다면 어려움이 없지만 상대의 직책정도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지칭 하느냐 부터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4) 경어 수업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

과목을 막론하고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국어 수업을 듣는 교과나, 성장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타 과목 수업과 비교 해 외국어 수업은 경험 해 보지 못했던 것을 습득해야 하므로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며, 제2 외국어로서의 일본어의 경우 현재는 중학교로 수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최근까지는 보통의 경우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제2외국어를 배운다. 이는, 성장기의 마지막 단계로 이미 자아가 어느 정도 실현된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이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것 보다 더 힘들게 다가 올 수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낯선 방법으로 조음기관을 작동 시켜야 하며, 모국어의 음성과는 다른 음을 가려서 듣고,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며 새로운 문화에 처음으로 접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방지 하는 일 등이 무작정 받아들이는 어린이 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학습을 위한 조언 및 동기 부여, 그리고 올바른 학습으로의 지도 등이 교사의 역할이라 하겠다.

이렇듯, 학습자에게 올바른 조력자가 되기 위하여 교사스스로 일본어 및 문화, 본고에서 다루었던 경어의 전반적인 면에 관한 폭 넓은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이 일본어의 경어 부분이고 일본어는 경어 이외에도 회화, 문화, 문법 등 여러 가지 면으로 학습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상세한 경어 지도는 피해야 하는 것도 교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또, 교사는 수업 모형을 만들기 전 다음과 같은 사항 또한 숙지해야 한다.[16]

① 경어의 개념을 용례를 들어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② 일상생활에서 필수로 쓰이는 경어를 암기하도록 한다.
③ 상대방에 따라 적절한 경어를 사용 할 수 있게 주의하며 지도한다.
④ 우리말의 경어와 일본어의 경어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시하고 언어 사용에 착오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게 한다.

16) 고등학교 일본어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2005 p.116

이처럼, 일본어 경어 교육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교재 연구 및 자료수집, 새로운 수업모형 개발은 학생들의 일본어 학습 성취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진다. 또한 교사 자신의 발전의 기회도 된다.

第5章. 敬語教育의 授業模型

일본어 경어의 현행 학교교육은 대부분 언어적 표현방법에 치우쳐 있다. 또한, 고등학교 교과서중 경어를 다룬 단원의 수업지도안을 살펴보면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존경어, 겸양어, 정중어의 경어표현이외의 비언어적인 경어표현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째. 7차 교육과정에서 미흡한 경어의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를 분석하여 개정 교과서에 미흡했던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수록한다.
둘 째. 교육현장에서 언어적 표현방법 이외에도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첨가한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

처음의 방법은 교육과정의 개정의 시기 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本稿에서는 두 번째 보완책을 중심으로 총체적인 경어교육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문에 대한 내용이 수록 되어 있는 교과서 중 대한교과서의 2 단원을 선택 해 그 중 방문예절 일부를 발췌하여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일본어 경어교육의 지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12) 방문의 내용이 수록된 각 교과단원

교과서	교학B Ⅰ	대한Ⅰ	민중Ⅰ	블랙Ⅰ	성안Ⅰ	지학Ⅱ	진명B Ⅰ
단원	3과	2과	4과	2과	3과	7과	3과

5-1 敬語教育의 授業 指導案

2. ここは わしつです

(1) 단원 개관

소라는 집 안 여기저기와 자기의 방을 안내받고 궁금한 것을 물어 보며, 아베 씨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정생활을 익혀 나간다. 일본어가 서투른 소라는 사전을 찾아가며, 가끔은 몸짓, 손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일본 유학 생활을 체험하기 시작한다. **이 단원은 일본의 주거 문화와 방문문화를 알 수 있고, 방문 시 행하여지는 관형화 된 경어표현을 습득하고 방문 시 비언어적 경어요소인 방문예절을 이해 할 수 있다.**

(2) 단원 학습 목표

·듣　기 : 질문, 안내, 위치, 승낙, 거절에 대한 경어표현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말하기 : 질문, 안내, 위치, 승낙, 거절에 대한 경어표현을 말할 수 있다.
·읽　기 : 가정생활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쓰　기 : 위치, 장소, 존재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다.
·문　화 : 일본의 주거 문화와 방문 예절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다.

(3) 지도상의 유의점

일본인의 가정을 방문 시 크게 방문 전, 방문 중, 방문 후의 예절을 나눌 수 있다. 방문 전 전화, 편지 등을 이용한 약속, 선물준비, 방문 중 식사예절 방문 후 인사 등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로써의 경어 표현을 학습자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사진, 영상 등을 통해 간접체험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수업 종료 후 수행평가 등으로 모둠 별 역할놀이(방문 시 방문자 초대자 등) 등을 시행하여 체험의 폭을 넓혀 주도록 한다.

(4) 차시별 교수·학습 지도안[17]

-1차시 수업 지도안

단 원 명	2. ここは わしつです	차 시	1/2
영 역	단원 안내 및 방문 예절 소개	교과서	28 ~ 29 쪽
학습 목표	1. 일본의 주거 문화를 알 수 있다. 2. 일본인 가정의 방문 예절을 이해한다. 3. 일본인 가정 방문 인사표현을 할 수 있다. 4. 방문인사 표현을 듣고 물음에 답할 수 있다.		
지도 방법과 유의점	1. 흥미를 잃지 않도록 설명위주의 수업을 지양한다. 2. 교과에 수록되어있지 않은 방문 전 예절(약속, 전화, 선물)을 사진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3. 학습자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린다.		

17) 本稿의 수업지도안은 대한교과서 2과의 전체 내용이 아닌 방문 시 언어적, 비언어적 경어표현을 2차시로 나누어 제시했다.

단계(분)	학습 내용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10)	학습 목표 문화 학습	·본시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일본의 주거 문화를 PPT자료로 제시한다.	·본시 학습 목표를 확인한다. ·일본의 주거 문화와 방문에 대해 보고 이해 한다.
전개(30)	듣 기 활 동	·일본드라마의 방문 장면을 보여준다. ·어떤 내용인지 학생들에게 추측해 보게 한다.	·드라마의 방문 장면을 보면서 주의 집중하여 듣는다. ·궁금한 내용을 메모한다. ·드라마 내용을 추측해 본다.
		【듣기 1】 ·화면을 보면서 들은 내용이 어떤 표현일지 질문하고 학생들이 답하게 한다. ·들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여주며 내용을 확인해 준다.	【듣기 1】 ·화면을 보면서 들은 내용이 어떤 표현일지 추측해 교사의 질문에 답한다.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으며 화면 내용을 확인한다.
		·한국에서 방문 전 약속 및 예절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본다.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한,일 방문예절의 공통점과 일본만의 특징을 소개한다.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발표한다. ·한,일 방문예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주의깊게 듣는다.
		·일본의 방문예절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면 ○표, 일치하지 않으면 ×표를 하도록 한다. ·정답을 확인해 준다.	·일본의 방문예절에 대한 내용을 잘 듣고, 내용과 일치하면 ○표, 일치하지 않으면 ×표를 한다. ·정답을 확인한다.
		【듣기 2】 ·본문을 다시 한 번 들려주며 듣고 따라 말하게 한다.	【듣기 2】 ·본문을 다시 한 번 들려주며 듣고 따라 말한다.
정리(10)	형성 평가 차시 예고	·형성 평가 및 학습 내용 확인 ·차시 학습 내용 예고	·형성 평가 및 학습 내용 정리 ·차시 학습 내용 확인

-2차시 수업 지도안

단 원 명	2. ここは わしつです	차 시	2/2 ~ 2/2
영 역	말하기	교과서	34 ~ 35 쪽
학습 목표	1. 일본가정 방문 예절을 이해하고 설명 할 수 있다. 2. 일본 가정 방문 시 경어 표현을 할 수 있다. 3. 학습 한 일본어를 사용하여 식사 시 경어 표현을 할 수 있다. 4. 방문예절 표현을 사용 한 역할놀이를 할 수 있다.		
지도 방법과 유의점	1. 모둠별 활동이 모둠원들의 개인 차이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잘 살펴 지도한다. 2. 경어에 관한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틀린 내용을 바로 지적하지 않는다. 3. 방문 시 인사를 제스처와 함께 말해 볼 수 있도록 한다. 4.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외에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경어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 (분)	학습 내용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10)	학습 목표	·본시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본시 학습 목표를 확인한다.
전개(80)	말하기 활동	·과제로 부과되었던 주제를 그룹별 발표시킨다. ·발표후 잘한 팀과 미흡한 팀 모두 칭찬 해 준다.	··과제로 주과되었던 주제를 그룹별로 발표한다.
		·방문 중 식사예절에 관한 내용을 영상화면을 통해 보여준다. .식사전, 후 권유 거절의 문장을 학습한다. 【식사 전, 후 인사】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역할을 나누어 기본 말하기 연습을 하고, 식사전, 후 권유, 거절표현을 바꿔 가며 대치 연습을 하게 한다. 【승낙과 거절】 ·좋아하는 음식을 서로 권하며, 권유와 거절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누어 연습시킨다. 【위 치】- 역할놀이 식사 전 , 식사 후 상황을 만들어 모둠별 역할놀이를 지도한다.	·제시된 영상을 주의깊게 본다. .주의깊게 듣고 따라 말 한다. 【식사 전, 후인사】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역할을 나누어 안내에 대한 말하기 연습을 한다. 【승낙과 거절】 ·교사가 제시한 여러 가지 상황을 활용하여, 역할을 나누어 승낙과 거절에 대한 표현을 말하기 연습한다. 【위 치】- 역할놀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모둠별 다양한 역할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정리(10)	형성 평가 차시 예고	·형성 평가 및 학습 내용 확인 ·차시 학습 내용 예고	·형성 평가 및 학습 내용 정리 ·차시 학습 내용 확인

형성평가 예시

1.일본 가정을 방문 할 때의 예절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가벼운 포옹이나 악수로 인사를 한다.
② 식사를 할 때에는 젓가락을 사용하며 그릇을 한 손으로 들고 먹는다.
③ 집 안에 들어가기 전 「おじゃします。」라고 인사하며 들어간다.
④ 식사 전 인사표현은「いただきます。」라고 한다.
⑤ 식사 후 인사 표현은 「ごちそうさまでした。」라고 한다.

2. 방문 시 필요한 표현이다. 밑줄 친 부분을 우리말로 채워 넣으시오.

① 여보세요. 이 선생님 댁 입니까?
もしもし、先生の (　　) ですか。
② (집안에 들어가며), 실례하겠습니다.
(　　)

3. 초대 받았을 때 집 안에서의 예절에 맞는 것에 o 틀린것에 x 표시를 하시오.
① 다타미가 깔려 있는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는다. (　)
② 다타미방 에서는 손님이 「とこのま」쪽으로 앉는다. (　)
③ 차를 마실 때에는 상대편과 같은 속도로 마시며 손님이 끝내기 전에
주인이 먼저 다 마시지 않는다. (　)

4. 식사 전, 후의 인사를 일본어로 써 보시오.
(　　/　　)

5. 집에 돌아가기 전 감사의 의미를 담은 인사 표현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どうも、しつれいしました。
② ごめんぐださい。
③ きょう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④ おさきにしつれいします。
⑤ はい、どうぞ。

이상, 경어 수업 시 비언어적 요소로서의 경어표현의 미흡점을 첨가한 수업 모형을 형성평가와 함께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교실활동을 운용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도하는 교사의 철저한 수업 준비와 학습자 개인의 차에 따른 탄력적인 수업지도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第6章. 結　論

이상으로, 경어의 개념을 정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경어를 언어적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로 분류 했다.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에 포함되는 범위는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12종 Ⅰ(12권)과 Ⅱ(6권) 총 18권에 나타난 경어를 접두사, 동사, 형식동사. 조동사를 중심으로 분석 하였으며, 비언어적 요소로 경어교육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인사, 복장, 예절, 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일본어를 교육하는 교사가 숙지하여야 할 전반적인 경어의 내용에 관해 고찰을 하고, 더불어 7차 교육과정에서 8차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현재, 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경어부분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보고 8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첨가 되어야할 부분을 찾아보았다. 또한, 학습 후 겪는 오용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7차 교육과정만의 문제점이 아닌 경어교육에 따른 교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경어 수업을 위한 학습지도안을 제시 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敬語와 對偶表現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굳이 범위를 따지지 않고 쓰고 있으나 대우표현이란, 경어를 포함하는 광의적인 표현양식으로 화자와 청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우표현에는 언어행동뿐 아니라 비언어 행동까지 포함 하고 있으며 여러 학자가 정의하고 사전의 표제어로 실릴 정도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므로 大愚表現과 敬語는 구분되어 사용 되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敬語를 大愚表現의 한 부류로 인정 하고 이끌어 나갔다.

둘 째, 언어적 표현요소로서의 경어를 크게 尊敬語, 謙讓語, 丁寧語, 美化語로 나누어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수록된 위 요소를 찾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어 경어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연구 해 보았고, 교과서에 수록된 비언어적 요소로서의 경어를 복장, 식사, 인사, 방문, 전화, 몸동작, 편지, 소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교과에 수록된 비언어적 경어표현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 째, 연구 결과로 볼 수 있는 비언어적 경어표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위한 해결책으로 本稿에서는 실제 수업에서 교사가 비언어적 경어표현을 첨가하여 수업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효율적인 경어 수업을 위한 교사의 역할을 연구하고 언어적 경어표현과 비언어적 경어표현을 적절히 분배한 수업모형과 형성평가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以上 본 연구를 통한 本稿의 내용에서 강조하는 바는, 어법적인 내용에 치우친 경어가 학습자로 하여금 경어가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게 하여 학습 시 거부감으로 표출되므로 교과서별로 다양한 경어의 난이도를 학습자가 고등학생이고 일본어가 제2 외국어로서의 학습과목임을 감안하여 경어의 일정한 표준수준을 정하여 학습자와 교수자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 생각한다. 또한, 학습자가 어렵다고 느끼는 경어를 한정된 과에 집중하여, 경어가 수록된 과에 관한 평가의 두려움 등을 느끼게 하여 학습효과를 떨어트리는 것 보다 비언어적 경어표현과 함께 여러 과로 분산시켜 학습효과의 증대와 흥미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과로, 제시한 점들을 토대로 하여 경어표현이 어색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本稿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알 수 있다. 本稿는 언어적 경어표현과 비언어적 경어표현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경어수업 전개를 연구했지만 수업 후의 학습자들의 오용에 관한 연구는 本稿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개괄적인 내용만을 다루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本稿에서 개괄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었던 내용을 더욱 보완하여 심도 있게 연구해, 앞으로 경어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향후의 과제로 삼는다.

參 考 文 獻

【單行本】

山田孝雄 『敬語法の研究』寶文館出版, 1924
森田良行『誤用分析 6』日本語学 11月, 明治書院,1983
吉川武時, 『外國人の日本語誤用分析2, 3』日本語学 11月, 明治書院,1983
辻村敏樹『敬語論考』, 明治書院, 1992
国語学会 編, 『国語学辞典』, 東京堂出版, 1980
国立国語研究所『敬語教育の基本問題 上下』1992
林 四郎 外, 『敬語の体系』明治書院, 1975
金仁炫, 『韓·日語の対照研究と日本語教育』어문학사, 2004
金孝子, 『일본어 경어표현』, 시사영어사, 1994
백동선, 『일본어의 대우표현 연구』, 보고사, 2003
오경 外, 『315가지 예문으로 배우는 일본어 경어 표현』J&C, 2002
이덕봉 外, 『현대 일본어 교육의 이해』,J&C, 2008
안용주 옮김, 『일본어교육방법론』, 시사일본어사, 2006
이하자, 『일어학 개설』, 한신문화사, 2002
최정선, 『일본어 편지』,學一出版社, 1996
최영철, 『한· 일 양국의 경어교육의 고찰』, 단국대학교, 1989

【論文類】

서정수, 『존대법의 연구』, 한신문화사, 1972
안현철,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경어에 관한 고찰』한국외대, 2004
최인녀, 『일본어 경어 사용에 관한 고찰』, 중앙대, 2002
유소정, 『第7次 教育課程 日本語 教科書의 敬語表現에 관한 考察』, 한국외대, 2003
김윤희, 『高等學校 日本語 教科書 敬語表現 分析 - 第7次 教育課程 日本語 教科書 12種을 중심으로』,경희대, 2008
정소영, 『현대일본어(現代日本語)의 경어오용(敬語誤用)양상에 관한 연구(研究)』, 고려대, 2008

【資 料】

윤용규, 일본어Ⅰ(교사용 지도서) 교학사,2005
일본어(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2005
일본어Ⅰ(교사용 지도서), 성안당, 2005
일본어ⅠⅡ(교사용 지도서), 지학사, 2005
오영자, 신영언, 일본어(교사용지도서),동아출판사,1990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일어교육	학 번	20058227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김진희	한문: 金 眞 熙		영문: KIM JIN-HEE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모아미래도 아파트 102동 203호				
연락처	062)515- 4337 E-MAIL: jinjink7@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日本語 敬語教育의 研究 영문 :The Study of the Education of the Japanese Honorific Language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년 8월 일

저작자: 김진희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